안동권씨 마·창·진 종친회 정기 월례회 개최

권태형 회장(왼쪽)

안동권씨 마·창·진 종친회(회장 권태형)는 9월 월례회를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에 홍화집에서 개최하였다. 권태형 회장은 9월 월례회는 특별히 마·창·진 족친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단합하고 재결집하자는 의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한마음으로 함께 했다. 이날 월례회에는 권재호 전 회장(90)과 권정현, 권정렬, 권영훈, 권영건 원로님들을 포함하여 감사 권오웅, 부회장 권오수, 권중호 합포구청장, 권민호 창원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권재천 사무국장, 권금현 재무국장, 권진구, 권오천, 권경업, 권대현 회원 등 16명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족친 간에 더욱 화합하고 재결집하는데 서로 힘껏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권민호 성산지역위원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출마하였다가 김경수(현)도지사에게 양보하고 더불어민주당 성산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민호 지역위원장

권영길 한국국학연구원 인문정신연수원장

지난 1월 16일 권영길 전 도 복지건강국장이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장에 선발되어 현재 근무 중이다. 권영길 원장은 9급 면서기부터 출발해 공직생활 40년만에 지방이사관으로 명예퇴직 했고 현재 안동소재 국학진흥원에서 인문정신 연수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주요 경력 등은 다음과 같다.

● 도청이전추진단장(경북도청 본청사 위치선정) ● 김관용 도지사 대변인 ● 성주군청 부군수 ● 경북도청 동해안발전본부장(국장) ● 경북도청 복지건강국장 ● 직원과 소통 등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로 행정·정치를 융합하는 행정전문가 ● 중앙부처·청와대·국회·국정원·언론인 등 다양한 인맥(sns 등 카톡 친구 9.800명 관리) 하루 잠 5시간 수면으로 애향·애족·애교 등 쓰리애 정신으로 열정이 대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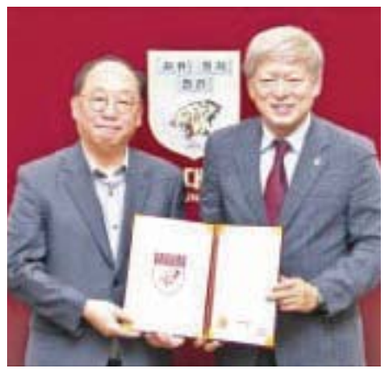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권종훈 신임 회장 선출

안동권씨 서울산악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산악회를 위해 헌신했던 제24대 권정섭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94년 산악회 창설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권종훈 대원(복야공파 34세, 66)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고향이 경북 상주인 권 회장은 전기공사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시절 가정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한을 50대 초반에 5년 동안 주경야독으로 뜻한 바를 성취한 노력파이기도 하다. 권회장은 "산악회는 산악회가 발족한 이래 매월 3째 주 일요일 전국의 주요 산들을 등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그야말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산악회"라고 말했다. 현재 6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족친들끼리 심신단련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권오섭 회장, 모교 고려대에 체육발전기금 10억 기부

권오섭 엘엔피코스메틱 회장(왼쪽)이 6일 모교인 고려대(총장 염재호·오른쪽)에 체육발전기금 10억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이날 서울 안암동 캠퍼스 본관에서 체육발전기금 기부 약정식을 열고 권 대표로부터 약정서를 전달받았다.

이 기금은 권 회장의 뜻에 따라 학내 체육환경 개선 과 체육활동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권 회장은 2011년 이후 고려대에 장학금으로 143억 7천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SR 대표이사에 권태명 前 코레일 본부장 취임

SRT(수서고속철)를 운영하는 ㈜SR이 3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권태명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1983년 철도청에 입사해 35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철도분야 전문가다. 한국철도공사 고객가치경영실장, 부산경남본부장, 서울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서울 수서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권 신임 사장은 SR을 '작지만 강한' 고속철도 운송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절대 안전 △사회적 가치제고 △국민과 주주가치 제고 △조직안정화와 인재경영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 △노사상생의 조직 문화 등을 꼽았다. 권 사장은 "1%의 실수는 100% 실패"라며 "업무범위를 초월한 중첩된 안전관리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사장은 또 "공기업 지정에 따른 제도와 관행을 신속히 정비하고 SR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가와 국민 참여 확대로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히며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화려한 성공과 처참한 실패의 오뚝이 사장님

32년만에 다시 회장님으로

권대욱(67) 청춘 합창단단장이 휴넷 회장에 선임되었다. 권 회장은 35세에 건설사 사장이 되었다. 파격이었다. 그 후 한보그룹에 입사해 한보종합건설 사장, 한보철강 건설사업본부 사장, 한보에너지 사장, 유원건설 사장 등을 역임했다. 외환위기 때 건설사 3곳(한보, 유원, 극동)이 다 망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후 준비 없이 창업했다 또 망했다. 강원도 문막에 들어가 3년을 혼자 지냈다. 전원주택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 '산막스쿨'을 운영했다. 10여년 동안 1200여명이 다녀갔다. 방송프로그램으로 청춘합창단단장도 맡고 있다. 합창단 단장을 맡으면서 2015년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연했고, 2017년 오스트리아 연주 때는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9월 22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연주했다. 권 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학 석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최고경영자 과정, 동국대 경영학 박사를 수료했다. 30여년간 사장을 역임한 전문경영인이다. 성공과 실패를 연주하듯 32년만에 다시 회장으로 오뚝이처럼 우뚝 섰다. 샐러리맨 신화로 불릴만하다.

복야공파 삼괴당계 38대손

권병기(權炳驥) 공학박사학위 취득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죽전마을 고(故)설암(雪嵒: 權玉鉉)선생의 장 증손이며, 주(주)세일사 권사영(權四榮) 회장의 장손인 병기(權炳驥·32)군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에서 건축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지난 8월 27일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 논문 제목은 "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Maturity Model using Macroeconomic Index"로 UN에서 제공하는 각 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건설산업 성숙도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각 국가의 건설산업 및 경제발전 수준을 성숙 단계 별로 분류하고 횡단면분석을 활용하여 건설투자와 국가 경제 발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 위치한 대륙 등의 특성이 건설투자와 국가 경제 발전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외 학계와 경제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정복 시의원과 권선영 학생(한림성심대학 3학년)

권정복 시의원이 딸 권선영 학생과 함께 뿌리를 찾고 싶어 멀리 삼척에서 고유제에 참석했다.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고유제가 열려 시조묘에 참배했다고 한다. 아빠와 딸이 붕어빵처럼 닮았다.

권혁웅 한화토탈 대표이사로 승진

권혁웅(57) (주)한화 지주경영부문 부사장이 한화토탈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신임 권혁웅 대표이사는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출신으로 한화그룹 내 정유·석유화학·에너지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이력은 다음과 같다.

△1961년생 △경기고 △한양대 화학공학 △KAIST 화학공학 석·박사 △한화에너지(구 경인에너지) 공정·제품연구실장 △한화케미칼 에너지절감 TFT팀장 △한화케미칼 CA 사업기획팀장 △한화에너지 사업·관리담당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한화 부사장

경일대, 권성근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권성근 경일대 교수(전자공학과)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제19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유공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권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미얀마, 베트남 등 여러 지역으로 기술수출을 돕고 기술관련 특허 30편, 논문 50편을 개재하였다.

권성근 경일대 교수(왼쪽)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100만 서명운동

권순용 사무국장과 권기성 이사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주대첩 뮤지컬이 공연되는 행주산성 특설무대에서 고양행주문화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승엽 고양문화원장, 한유수 고양문화원부원장, 방규동 전 고양문화원원장. 신택기 뮤지컬감독, 이재용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양지부장(사진 서명자) 등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다. 일부 시민들은 날이 어두워 글씨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와서 서명해 주었다.

제10회 대전 孝문화뿌리축제 참여 안내

제10회 대전 孝문화뿌리축제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100만 족친은 적극 참여하여 안동권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일시 : 2018.10.5.(금)~10.7.(일)

♣장소 : 성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 일대

♣안동권씨 입장퍼레이드 : 10월 5일 14:00 입장(참여 인원 많으면 대상 수상)

승하차

행사장 전기셔틀버스 운행

○ 운영기간 : 2018. 10. 5(금) ~ 2018. 10. 7(일) / 3일간

○ 배차간격 : 14인승 4대 차량별 6회 왕복 (10분 간격 배차)

○ 운행구간 : 안영교 입구(시점) ↔ 효문화마을(종점)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